

고용노동부 - 중장년층 취업지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취업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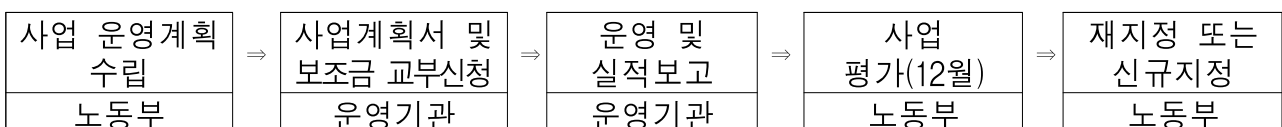
1 사업 주요 내용

- ☐ (사업 목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 등에 대하여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다음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 ☐ (사업내용) 재직단계에서부터의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지원, 재취업·창업 등 경로별 일자리 이동 지원
- ☐ (예산/재원) 13,298백만원('21년)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세부사업(내역사업)	25,640	24,411	24,366 (99.8)	22,252	△3,388	△13.21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1,572	20,343	20,343 (100)	13,298	△8,274	△38.36

- ☐ (추진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4, 제21조의3
- ☐ (지원대상) 40세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 및 구직자
-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코로나19, 기술변화 등에 따른 업종전환 등으로 전직지원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취·창업지원서비스 대폭 강화, 전담 컨설턴트 추가 배정('21년 24명 증원)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추진

*'20년 27,527명(취업인원 실적) → '21년 4만명(목표)

- 성과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등과의 협업 확대* 및 성과 연계 지원* 강화

* 희망센터 교부금 배정시 자치단체 협업모델 등 특화 사업 우대

** 재취업 성공 등 성과에 따른 사업규모 및 인건비 지원 차등화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2020년 참여자는 총 114,729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8.7%, 취업지원 유형 전체 참여자의 11.3%

- (성별) 본 사업 참여자 중 남성은 72.7%(83,377명), 여성은 27.3%(31,352명)로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

- (연령별) 본 사업의 참여자 중 장년이 53.6%(61,446명)로 가장 많고, 중년 34.0%(39,050명), 고령 12.3%(14,063명), 청년 0.1%(170명) 순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114,729 (100)	83,377 (72.7)	31,352 (27.3)	170 (0.1)	39,050 (34.0)	61,446 (53.6)	14,063 (12.3)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사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40세 미만 참여자도 존재

□ 정량지표별 결과

(단위: %, 일)

	취업률 (180일 이내)	알선 취업률 (180일 이내)	고용 유지율 (180일 이상)	취업 소요기간	임금수준
고용서비스 전체	42.2	27.3	57.8	113.7	79.5
취업지원 전체	42.2	27.3	57.8	113.7	79.5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31.1	4.7	61.6	173.1	107.8

□ (만족도 조사)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서비스 전체	4.12	4.10	4.19	4.29	4.15	4.08	4.16	4.26	4.16	4.02
취업지원 전체	4.08	4.07	4.16	4.24	4.11	4.07	4.15	4.23	4.12	3.98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3.99	3.98	4.05	4.18	4.02	3.94	3.95	4.15	4.04	3.89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 (국정과제) 국정과제 18-④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동시에 고용부·복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범부처 중단기 계획에 주요 과제로 되어있는 사항임

- (법적기반 및 정책추진의 필요성) 동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 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20.5)로 인해 사업의 정체성과 필요성은 확고함. 특히 40세 이상 중장년(재직자 및 구직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생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직단계부터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창업 등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한다는 취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라 할 수 있음. 2020년 5월 1일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그 중요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일자리사업 성과

- (취업성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구직자 발굴 및 직업훈련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60~70개의 교육과정(교육인원 1,500명)이 취소되는 등 정상적 상황에서 취업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노력한 부분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음
- (연령대별, 경력유형별 서비스제공)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과정은 재직자와 구직자로 나눠 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신중년에 맞는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알선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우수하다고 판단함. 특히 '20.5.1.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재직자를 위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부분도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300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우선 제공을 통하여 노동취약계층 참여율 제고하고자 노력한 부분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음
- * 중소·중견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대상 사업 안내우편물을 발송하여 생애경력 설계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 * 생애경력설계 기업과정 중소기업(300인 미만) 근로자 참여율
 - '18년(37.1%) → '19년(34.6%) → '20년(56.6%)

○ 운영의 적절성

- (실행계획 추진) 중장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46%('19년 기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실업자의 46%('19년 489만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생애전환기에 경력을 진단하고,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대상별(재직자·구직자) 및 연령별(40대·50대·60대), 희망 경로별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시대에 맞추어, 중장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업·직종별, 구직자 생애 경력설계 주제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하는 등 고령화되는 인구추세에 맞춘 중장년대상 고용서비스를 빈틈없이 추진하기위해 계획·노력하였음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취업연계실적을 증가시키는 부분에서는 한계를 보임. 취업실적 관련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20년 노사발전재단 종합감사) 및 타 고용서비스 대비 취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외부지적에 따라 평가지표 상 취업률 지표 신설 등 지침 개정하였음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기회 확산을 위하여 전직지원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하는데 역량을 나눠 집중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별 사회수요를 반영한 고용창출을 시도

○ 제도개선 노력

- 자체 간담회를 통해 '20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1년에도 지침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함
- 취업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21년도부터 목표 취업자 수 설정 및 알선취업에 평가에서 가점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노력을 하고자 하였으며('20년 평가지표에 취업률 신설) 상담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건수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초상담과 경력진단을 강화하였음. 중소·중견기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재직자 전직지원과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